『신앙의 계승』

찬 양 찬양 2곡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대표기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
말 씀 시편 127:1-3, 사무엘하 7:11-14

시편 127:1-3 (NKRV)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무엘하 7:12-13 (NKRV)
12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의 키포인트 -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중요한일들이 있으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나누기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이 죽으면 더 건강해 지지만 남성들은 아내가 죽으면 몇년 못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스개 소리 같은 이야기지만 독신남성들은 기혼남성에 비해 심근경색, 심장발작, 자살률 등이 2.2~3.5배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까요?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한 기관에서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가정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휴식, 안전감, 편안함, 위로를 주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다고 답했습니다. 즉 가정은 위로를 주고, 안정감을 주며,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는 불편하고 먼 길을 오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는 곳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진 127편 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에서 전도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말 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솔로몬은 금방패를 200개 만들었고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명이 있었다.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화려한 건축을 했으며 왕궁의 그릇은 모두 금이었다. 잠언을 3000개 말하고 1000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식물과 동물, 새와 물고기까지 연구했다.” 즉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성을 지

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눕는 수고도 모두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성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웃나라와 혼인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번 말씀하셨으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사후에 나라는 분열되었고 후대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목동출신이었고 솔로몬같은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하 7:1에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he King was settled in his place"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다윗)을 그 자리에 안착하게 하셨다" 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편안해지고 안착하게 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향락에 빠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삼하7:18)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후대에 복을 주시고 왕위를 이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삼하7장) 이후 다윗은 신앙을 솔로몬에게 잘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지혜로 집을 세우려 했고, 자기 능력으로 성을 지키고자 했으며 성공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헛되다는 단어는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속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잘 될줄 알았고 자기 지혜로 판단하면 다 될줄 알았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면 나라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일을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추석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가족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 - 삶 나누기

1. 다윗은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솔로몬이 다윗과 달리 후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3.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내가 할수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역식구들과 나눠봅시다.

중보기도

1.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3.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봉헌찬송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봉헌기도** 인도자 **주기도문으로 구역예배를 마치겠습니다.**